

‘세월호 3년 상처’...진도, 어업기반 먼저 살리자

어업·관광 활성화 위해 국비 250억 요청 양식장 기름 피해 복구 등 6건 지원 촉구

세월호 침몰사고로 지난 3년간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진도군의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이후 진도는 어업은 물론 관광 및 특산물 소비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한 해에만 진도지역 경제 손실액이 898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누적돼 왔다.

운림산방 등 진도 지역 7개 유료 관광지 입장객 수도 참사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력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지역 전체가 활기를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사고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선 어업생산력 증진 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이 정부에 요청할 어업생산력 증대 관련 국비 사업 6건의 전체 사업비가 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월호 침몰 당시와 최근 인양과정에서 막대한 기름오염 피해를 당한 동거차

도·서거차도 등 조도면 일대 해조류 양식 기반사업으로 6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군은 해조류 양식시설에 필요한 닻 202개를 1986ha에 국비로 설치해 주변 어러움에 처한 어가의 부담 경감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참사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광항 일원에 활선어 회센터(50억 원)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사 후 높아진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근 빈발하는 해양안전사고의 수습·예방을 위해 선착장 주변에 다목적 CCTV를 설치(10억 원)하는 것도 절실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진도의 낙후된 어업기반시설

보수·보강사업(90억 원)과 패류·해조류 양식어장 재배치사업(20억 원)도 참사 후 위축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군은 강조했다.

군은 참사 후 생필품을 여객선에 실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뀐 뒤 군비를 투입해 조도권 화물차도선 건조사업(20억 원)을 추진하는 데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배는 이른면 오는 8월부터 운항한다.

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음식점·숙박업소·낚시점 매출 급감, 특산물 판매 저조 등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군민의 눈물을 정부가 닦아 줄 때”라고 강조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3차원 탐색레이더 갖춘 ‘광주함’ 예속식 해군의 여섯 번째 차기호위함(FFG : Guided Missile Frigate)으로 광주광역시 이름의 딴 ‘광주함’이 해군 제3함대에 실전에 배치됐다. ‘광주함’은 이날 오전 3함대사령부에서 이성한 함대사령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예속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2300t급 차기호위함 광주함은 3차원 탐색레이더, 대함·대공미사일, 해상작전헬기 탑재 및 운용 등 대함·대공·대잠·대공전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광주FC, 새 전용구장 건립 제2도약 나선다

120억 들여 보조경기장에 1만석 규모 새 구장 건립 연습구장 2개면 ... 메인 후원 발굴·협력마케팅 추진

광주FC가 축구 전용구장과 연습구장 등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2의 도약에 나선다.

광주시는 5일 광주FC 축구 전용구장과 연습구장 마린, 시민참여 확대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홈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 대신 인접한 보조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탈바꿈한다.

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말까지 가년 관공석 8000~1만석, 30실 규모의 숙소를 갖춘 새 전용구장이 탄생한다.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축구장을 찾는 팬들이 보다 실감나는 경기관람을 할 수 있어 관람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옛 염주 양공장은 14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2면 규모의 연습구장으로 만든다.

광주FC 선수들은 그동안 연습구장이 없어 목포 연습장까지 장거리 이동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열악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도 모색한다.

광주FC는 클래식 12개 구단 중 가장 적은 80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운영중이다.

지나해는 돈을 빌려 급어를 해결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바닥이다. 광주시는 메인 후원 발굴, 시와 시의회, 언론이 함께하는 협력마케팅 추진, 구단 역량 강화, 마케팅 전문 인력 총원 등을 추진중이다.

특히 광주FC는 단계별로 시민참여 시

스템 구축, 시민 밀착서비스 강화, 자립적 시민구단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원의 집 사업 확대, 동호인 축구 포럼 운영, 홍보와 팬서비스 강화, 편의시설 확충, 협동조합 방식 운영 검토, 시민참여실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민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단 운영의 핵심인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묘책이 없는 한 구단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FC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등 인프라 구축부터 팬서비스까지 전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주FC가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대상 4곳 선정

순천 주암 용오름마을 광양 서천면 장미공원 담양 월산면 도개마을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

전남도가 ‘2017년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경관개선사업’ 대상으로 순천 주암면 용오름마을, 광양 서천면 장미공원, 담양 월산면 도개마을,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 등 4곳을 선정했다.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경관개선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특색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경관자원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열의가 높아 선정됐다.

순천 용오름마을은 건우직녀 사랑 사슬걸이와 소원 저장소 등 이벤트 장소를 만들어 마을 역사와 연계된 특색 있는 농촌마을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 장미공원은 야간 조명을 통한 야경길을

조성해 마을 대표 경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공원을 꾸리고 이용하는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돼 있고 광양불고기축제 인접 지역으로 경관 연계성이 우수하다.

담양 도개마을은 마을 전통 세시풍속인 마미애매이 굿의 전승마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구 재현 벽화 조성 등을 통한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한다.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은 진흙입 거점부에 우수영을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문화마을의 경관 연속성을 확보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4개 지역 경관개선 사업비는 모두 2억원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좋은 경관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전란의 터전을 꾸리고 관리하며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전남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사업’ 육성 탄력

‘지역산업 공모’ 선정... 17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 공모사업’에서 전남도의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 및 지역산업육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 혁신 주체가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1700만원과 지방비, 참여 기업 부담 등을 포함해 총 17억5000만원이다.

사업 기간은 2018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 및 지역산업육성 사업’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전남도의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주관하고, 한국전력공사,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사업진흥원, 그린테크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술 개발 분야에서 스마트 가로등 충전스테이션 구축, 에너지 데이터 전용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시티 서비스 앱 개발 등이다.

기업지원 분야에서 스마트에너지시티 연계 지역기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 네트워킹 분야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 사업 등이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식품부, 깨끗한 농촌만들기 ‘클린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클린 에그리컬처 캠페인’(Clean Agriculture Campaign·이하 CAC)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통해 ‘신뢰받는 농품, 찾아오는 농촌’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농산물·농업인 3대 캠페인 핵심 대상에 대해 마을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민활동을 농식품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1만 개 농촌 마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체 농촌 마을의 50%인 2만 개 마을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마을을 선정, 은퇴자·학생·농업인 맞춤형 CAC 일자리 발굴 등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캠페인 발대식은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이천시 산수유마을에서 유관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안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